

#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 20년간 1천1백여 우수작품 선정, 한국건축의 맥 이어와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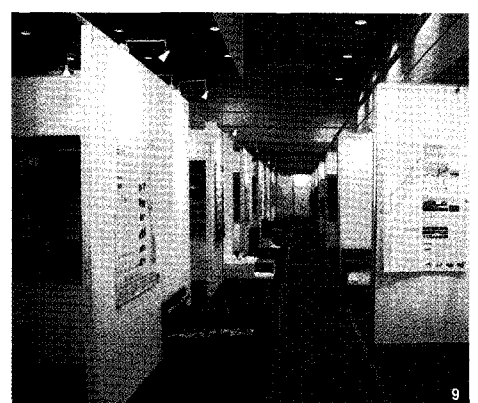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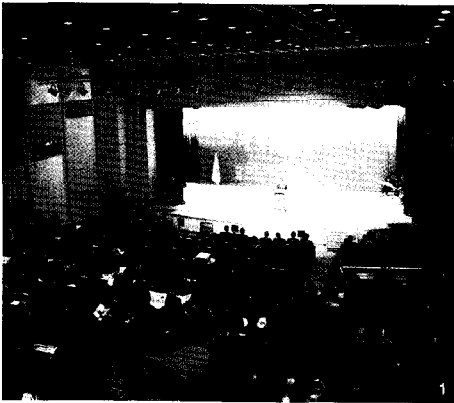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해양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해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강성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정부관계자 및 수상자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성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정부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건축문화 행사로서 역사와 전통을 쌓으며 이 시대의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해 건축문화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

이 중심이 된 건축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을 격려해 창작의욕을 북돋아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며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건축문화 창달의 기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대의 그릇으로 남을 훌륭한 작품들을 창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인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의 심사보고 이후 시상식에서는 준공건축물부문, 계획건축물부문,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공로상에 대한 시상

이 이어졌다. 수상작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장소 Hall A '한국건축산업대전2011' 전시장에서 전시됐다.



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장 전경

4. 추사\_이종환 서울경제신문 사장

7.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시상\_박길룡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2. 개회사\_강성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5. 계획건축물부문 시상

8. 추사\_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3. 공로상 시상\_황일인 (주)일건 건축사무소 대표,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

6. 준공건축물부문 시상

9. 한국건축산업대전2011에서 열린 수상작 전시장 전경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1

## 4개 전시 동시개최, 우수건축자재추천심사,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등 풍성

대한건축사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건축전문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11(이하 KAFF2011)'이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성대히 개최됐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의 주제는 '친환경 건축재료의 발견'으로 예년에 비해 보다 다양해진 건축자재와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10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외빈과 강성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및 협회 임직원이 참석했다. 특히 개막식 컷팅 후 권도엽 장관과 내외빈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참여 업체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며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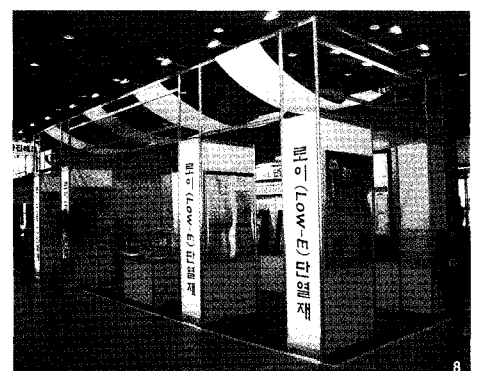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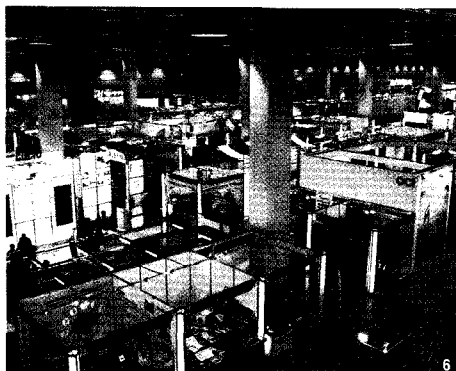
KAFF2011은 공공디자인전시회, 기후변화방재산업전, 스마트그린빌딩엑스

포 3개의 전시회와 코엑스 1층 전홀(Hall A, B)에서 Green City Week로 동시에 개최돼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특히 전시회 기간 동안 '우수건축자재 추천심사'를 실시했으며,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 추천하여 회원들에게 우수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은 원기업(주), (주)씨엔에스,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무소가 수상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상에는 (주)라인테크시스템, 천지건업(주), 주신기업(주)이,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은 (주)하나기공, 경민산업(주)이 수상했다.

부대행사로는 건축사 연수교육, 대한건축사 미술전, 건축법률 무료상담 등이 개최됐다.



1. 한국건축산업대전2011 개막식  
4. 건축사 연수교육 전경  
7. 관람객과 상담 중인 참가업체

2. 내외귀빈에게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설명하는 서울주 사업위원회 위원장  
5. 강성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수여 장면  
8. 우수건축자재 추천업체(일산산업)

3. 전시장을 관람중인 내외빈  
6. 전시장 전경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 관객층 다양해지고, 유료관객 대폭 늘어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됐다.

10월 20일 개최된 개막식에는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건축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유영식 감독과 영화배우 황우슬혜씨가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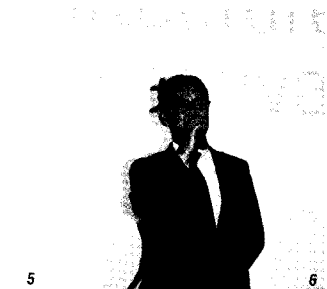
대회장인 강성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로 건축영화제가 3회째를 맞이했다. 해마다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건축영화제가 올 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즐겁고 재미있게 영화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막을 연 이번 영화제는 'Between'을 주제로 총 8개국 16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상영작을 증편하고 상영

관을 2개관으로 늘려 5일간 총 3,079석, 63.7%의 객석점유율을 거두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상영작 중 '빌딩 173+메구니카', '인사이드 피아노+죽은 자의 정원', '프루이트 아이고'는 전회 매했으며, 단편영화 6편을 함께 상영한 '비트윈 슷 앤 슷'은 다양한 관객층을 불러 모았다. 특히 비트윈 슷 앤 슷 중 애니메이션인 '로베르토+개미건축사', '폭풍의 밤', '픽셀'의 상영관을 찾는 유소년 및 부모 관객들도 줄을 이어 관객층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페스티벌 아키텍트)에는 영화배우 박상민과 황우슬혜가 위촉됐다.



1.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식 전경  
4.축사\_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7.축사\_이상현 국회의원  
10-11.리셉션 전경

2.축사\_강성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5.축사\_유병권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8.축사\_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3.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박상민과 황우슬혜  
6.축사\_정연규 KCC 전무(Main Sponsor)  
9.개막선언\_김형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